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쳐시다

제 역할 못하는 신도회

98년 조계종사태는 재가불자들에게 너무나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이를 지켜본 재가불자들은 재가자들의 바른 신행과 조직화된 힘만이 이러한 사태를 예방할 수 있으며, 나아가 청정교단을 구현하고 불교의 개혁과 발전을 성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지난 50년대 중반 정화운동 기간에 청정교단을 기원했던 재가불자들의 열원이 모여져 조계종 전국신도회가 결성되었지만, 기초단위인 사찰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는 승단과 사찰이 재가신도 교육과 조직에 대한 지도를 방치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재가불자들의 의식이 각성되지 못한 점에 기인했다.

이러 94년 조계종 개혁불사에 의해 창립된 중앙신도회는 종단개혁 세력의 한 주체였던 재가불자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총무원의 주도하에 만들어져 신도조직운동의 현실적 역량부족을 드러냈다.

결국 중앙신도회는 2년여의 우여곡절 끝에 출범했지만 신도회장과 총무원과의 갈등으로 파행을 거듭하다가 결국 신도회장의 사퇴로 귀결되어 4년간의 허송세월을 보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신도회는 종단을 의회화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종단 내에서 종단 사업에 대한 신도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신도대중의 여론을 수렴해 종단정책에 반영시키는 중간자적 소임을 맡아야 한다.

종단의 재만사업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대안제시도 잊지 말아야 하며, 포교와 사회참여활동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재가연대 정운정 사무처장은 "평실상부한 신도대표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과 종단의 지도와 조화되는 자율성 확보, 민주적 운영의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다양한 교육·연수프로그램을 통한 신도들의 의식과 신행혁신을 통한 조직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재경 기자(jkim@buddhapia.com)

청소년 불자 늘고있다

조계종 포교원 '청소년 종교의식 조사'

**26·2%로 4년간 8% 증가
 신행활동은 오히려 소극적**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연스님) 포교연구실이 일반 청소년들의 종교에 대한 의식과 종교 본포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청소년 종교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85%의 청소년이 종교를 갖고 있으며, 이 가운데 26.2%의 청소년이 불교를 신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 95년 통계청이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의 10대 청소년 종교인구 현황에 비해 불교를 신앙하는 청소년이 타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지난 4년간 약 8%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 개신교는 26.6%, 천주교 10.7%로 불교보다 낮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95년 당시 10대(10세~19세) 청소년종교인구는 불교 18.5%, 개신교 22.9%, 천주교 7.38%였다. 이는 그동안 청소년 불교인구의 비율이 개신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뒤져 있을 것이라는 기존의 부정적인 예상을 뒤엎고, 미래불교에 대한 희망을 던져주기에 충분하다.

이번 청소년 종교의식 조사는

포교연구실이 지난 5월부터 7월 24일까지 광역 지자체별 인구비례에 따라 전국 128개 학교, 본포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청소년 종교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85%의 청소년이 종교를 갖고 있으며, 이 가운데 26.2%의 청소년이 불교를 신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청소년 불교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불자의 70.9%가 종교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며, 기도·법회·경전읽기·교리공부·포교활동·수행 등의 종교활동 참가 빈도는 개신교(81.4%) 천주교(72.8%)에 비해 불교(23.5%)가 가장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스님(목사, 신부님)과의 대화에 대한 물음에 불교는 45.6%가 전혀 상담하지 않았다고 답해 청소년불자와 스님과의 접촉이 다른 종교보다 매우 낮게 나타났다.

포교연구실은 이 결과에 대한 최종 결과 보고서를 11월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의식조사사업과 연구 분석을 통해 사대에 부응하는 포교정책을 제시해 나갈 방침이다.

〈관련기사 3면〉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여의도 불교포교원 1일 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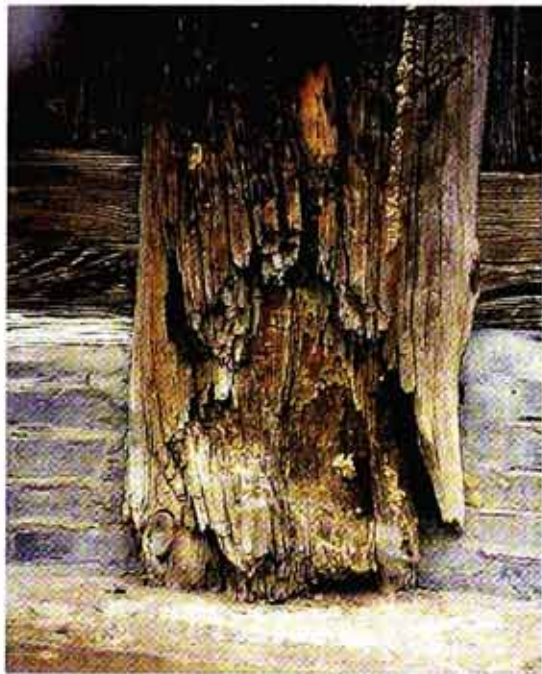
방송·정치·금융인 포교활성화 기대

여의도 지역의 포교거점 마련과 언론 정치 금융 등 여론 주도층의 신행활동을 돕기 위해 조계종총무원이 마련한 여의도불교포교원(관장 원택 총무원장, 지도법사 종서, 서울 여의도동 26-5 대오빌딩 12층)이 9월 1일 심문준 집안 및 불식을 갖고 개원한다.

여의도불교포교원은 여의도 지역 포교활성화를 위해 △선수형 지도 △전통문화(전통사, 전통장 등) 강좌를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작장·작농단체의 법회 및 회의 공간으

로 제공된다. 총무원은 특히 여의도불교포교원을 이용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운영의 전형을 보인다는 방침이다. 1백50평 규모에 법당과 회의실 차당실 사무실이 들어서는 여의도불교포교원의 개원에 따라 KBS MBC SBS 등 방송인물 자화, 국회정각과 등 정당정치, 연예 금융인 등 전문인 포교활성화와 지역불자들의 신행 활성화가 기대된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양산 통도사 역사전의 기둥. 흰개미가 많이되어 주춧돌과 기둥사이에 손이 들어갈 정도로 울룩 파였다.

목조문화재 '흰개미 비상'

무위사·통도사등 20여사찰 피해 심각

문화재청 예산부족...조계종 속수무책

통도사 대웅전, 봉암사 극락전, 귀선사 대적광전, 은혜사 거조암등 20개 사찰의 국보·보물 목조문화재 22점이 흰개미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11면〉

입업연구원은 국보·보물 목조문화재 69개소중 33개소가 흰개미 피해를 당했으며, 사찰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의 목조건물 83개 조사에서도 사찰건각 22개소가 흰개미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계종 문화부장 일할스님은 "종단 성보보존위원회와 논의했으나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문화재청의 관리를 기대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올해 목조문화재 보수예산으로 9백98

억원을 책정, 매년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5천억원의 보수금액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 따라서 목조문화재 개·보수시 사찰과 관할 관청에서는 보수비용을 낮추기 위해 사용목재의 흰개미 방제처리를 생각하는 등 피해를 부추기고 있다. 또 보수순서가 밀린 목재문화재의 경우 오랫동안 흰개미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보수예산을 확충하고 저렴한 방제기술을 개발하지 않는 한 사찰 목조문화재의 기둥과 석가대 속은 비어가고, 결국 목조문화재가 붕괴되는 인재(人災)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구산선문 참선 기행

9월: 희양산문(봉암사)·대승사·김용사

9월에는 지증선사 도연스님(824~882)에 의해 개창된 희양산문의 중심도량 봉암사를 찾아갑니다. 봉암사에서는 지증대사 부도(보물 제137호)와 삼층석탑(보물 제169호) 등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천오백년 고찰 대승사에서는 화려한 목각담을 볼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서용·성철·서암스님등 조계종 중흥 세분을 배출한 김용사도 참배합니다.

특히 조계종 특별수도도로 지정된 봉암사는 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되는 스님들의 수행성지로서 이번 기행은 봉암사를 참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봉암사 특별수행도량...일반에 비공개

- ◇출발: 9월 4일(토) 밤11시·조계사 앞(무박2일)
- ◇회비: 4만5천원(조식 중식 포함)
- ◇안내: 자광스님(김용사 주지)
-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3
-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 ◇구산선문 관련자료 부디DDO(www.buddhapia.com)에서 보세요
- ※특별수도도량 참배이오니 반박지 청용을 삼가해 주십시오.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협찬: 일약약품·대한불교계과인회

조계종 하안거 해제

79선원 2천수좌 정진

불기 2543년 하안거 해제를 맞아 조계종 종정 해암스님 및 해인총림(해인사) 방장 법전스님, 조계총림(송광사) 방장 보성스님, 덕숭총림(수덕사) 방장, 고봉총림(백암사) 방장 서

옹스님은 25일 해제발을 발표. 지속적인 수행을 당부했다. 〈해제발 3면〉 이번 하안거(음력 8. 15~7. 15)에는 4대 총림을 비롯 비구 선원 42곳, 비구니선원 30곳, 해외의 선원 2곳 등 모두 79곳의 선원에서 2천여명의 수좌들이 안거에 들어 정진했다. 정성운 기자

"승가대학 교육환경 개선 절실"

조계종교육원 평가보고

조계종 사이 승가대학(강원)은 교육환경 개선을 바로 세우 것이 급선무이며, 사미니 승가대학은 재정적 후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조사되는 등 사미니·사미니 승가대학간에 운영상 큰 편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은 6월부터 8월 중순까지 실시한 승가대학 종합평가 보고서를 통해 교직자의 교육열의는 대단히 높았으나, 승가대학이 소관한 사찰 소임자들의 의식이 종단과 교직자, 학인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교육환경

을 효과적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인의 경우 종단 기본교육 기관으로서의 강원의 위상과 역할 및 학인의 신분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사미니·사미니의제 미시행 등)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종합평가에서는 동학사 승가대학(외제 시행), 작지사승가대학(학적부관리), 경녕사승가대학(도서관시설), 운문사승가대학(컴퓨터 시설 및 교직자 채용), 해인사승가대학(평가제 시행) 등이 항목별 모범 승가대학으로 평가받았다.

김재경 기자 (jkim@buddhapia.com)

통도사 신임주지에 대한 지지 성명서

고승대덕과 선지식들이 불조의 예명을 잇고 1,600여년 동안 자장국토의 정정 계을 가문의 법맥을 이어온 통도사가 조계종 총풍을 경면으로 부정하는 무리들에 의해 말할 수 없는 광풍으로 혼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금번 종단사태의 한 가운데 통도사가 자리하기까지 지회들의 미혹과 불찰을 스스로 책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은 화합과 공의로 총림을 온전히 이끌지 못한 것이 우리 모두의 불찰이고, 정화라는 명분으로 여론의 눈과 귀를 멀게 한 일부의 권속과 속된 무리들로부터 여론을 지켜드리지 못한 것이 또한 우리들의 불찰임을 아르게 자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불보살의 가피와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더 이상 통도 역사에 커인이 되고 싶지 않고 역대 조사스님들과 선대 스님들의 이름 앞에 건전한 참회를 하기 위하여 뜻있는 스님들이 결사를 만들어 통도사 사태에 대한 수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통도사 사태수습을 위해 이미 임회와 신중총회에서 추천된 현문스님을 새로운 주지로 적극 지지하며, 통도사 본 말사(암) 주지를 비롯하여 전 대중이 뜻을 모아 본사의 모든 난제들을 해결하며 차후로는 다시금 이러한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는 통도사 대중이 되기를 부처님 전에 맹세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를 천명하는 바입니다.

불기 2543년 8월 27일

● 우리의 결의 ●

1. 우리는 신임 주지 현문스님을 전폭 지지한다.
2. 우리는 신임 주지스님을 중심으로 통도사의 수습과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3. 우리는 통도사를 혼란케 하는 정화개혁회의 등 그 어떤 외부세력도 철저히 배격한다.
4. 우리는 율하 큰스님을 신중 최고의 어른으로서 엄중히 모실 것을 다짐한다.

- 통도사 본말사(암) 대중 일동
- 울산 불교신도회
- 통도사 신도회 일동
- 울산 신행단체협의회

· 각말사 주지(무순)

- 중진: 초우, 놀암, 해남, 법산, 증법, 태봉, 종진, 노암, 현산
 산내암자: 성파, 원명, 태웅, 명정, 원산, 무애, 수안, 중선, 법산, 덕봉
 본사: 총회의원 영배, 박물관장 범하
 울산: 신흥사 산용, 문수사 태연, 정토사 덕진, 은월암 법인, 내원암 명현, 해남사 성본, 선암사 해인, 남산사 지용, 법문사 정진, 태안사 문성, 청룡암 종현, 석남사 영운, 화장사 재경, 보현사 동우, 옥천암 향조, 월봉사 상운, 낙서암 원우, 영불암 금파, 운흥사 재홍
 양산: 학림사 초현, 성전암 도승, 백송암 지건, 보현정사 정수, 신흥사 영규, 양산포교당 혜철, 불금포교당 일진, 원효암 양현, 내원사 혜동, 미타암 혜오, 안적암 도훈
 부산: 원광사 지일, 보현사 지환, 부산포교원 심산, 금화사 대안, 극락선원 관영, 불광사 인산
 의령/청양: 수도암 상원, 관봉사 정안, 구고사 진범, 각료암 우보, 삼성암 시명, 청원암 원진, 도성암 만천, 창녕포교당 청운, 법화사 법운
 마산/창원: 정법사 지태, 구룡사 지형, 자비정사 진홍
 밀양: 석공사 선운, 무봉사 도문, 홍제사 법마, 보문사 신행, 만어사 만오
 석남사: 법회, 불필, 범용, 현목 외 일동
 내원사: 송담, 상오, 진성, 해남 외 일동
 기타: 마하사 재원, 영명사 주광, 내원사 정수, 대각사 정호, 해황사 주원
 재적승: 지근, 명안, 도본, 범해, 본원, 현수, 회문, 묘경, 묘행, 묘영, 시공, 신흥, 혜우, 백운, 종선, 덕일, 영수, 명본, 도진, 영일, 영봉, 종진, 만성, 만승, 만행, 명덕, 도행, 도진, 무이, 문수, 해도, 법진, 보덕, 삼석, 선본, 시현, 일승, 경관, 정일, 경행, 지선, 진공, 진상, 진하, 춘우, 태진, 혜공, 혜도, 혜안, 효범, 효신, 혜경, 인오, 혜덕, 덕승, 정암, 수연, 진목, 동우, 병천, 도류, 진범, 지상, 무설, 영한, 만초, 진승.